활동지 구성 이시내 김포 가현초등학교 교사

가장 외로운 순간에 건네는 다정한 겨울 인사
빛나는 유년의 한때를 뭉클하게 그린 그림책

눈아이

안녕달 그림책 | 창비 2021

따스한 봄이 가까워지자 녹아내리는 눈덩이 '눈아이'와 주인공 아이의 이야기는 끝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두 아이의 서툴지만 애틋한 우정이 그리워 책을 꺼내 읽는다. 겨울의 한가운데서 만난 눈아이를 위해 선뜻 장갑 한 짝을 나누어 주고, 눈아이가 봄 햇살에 녹아 점점 작아지고 더러워져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고 약속하는 아이의 다정한 마음이 한없이 소중하다. 눈아이가 녹아 버린 후, 끝없는 숨바꼭질을 하듯 눈아이를 기다리던 아이는 둘의 우정을 상징하는 붉은 털장갑을 본 순간 "찾았다!"라고 외친다. 자신을 잊지 않고 끝내 찾아 준 친구의 외침에 눈아이가 함박웃음을 짓는 장면에서는 눈가가 뜨거워진다. 서로에게 마음을 내주고, 함께한 추억을 그리며 한결같이 서로를 기다리는 둘의 눈부신 우정이 마음을 포근히 감싼다.

우정

표지 살펴보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표지와 제목을 자세히 살피며 어떤 내용일지 생각해 봅시다.

앞의 표지

- ◆ 한 아이와 눈사람 뒤로 눈 덮인 들판이 보여요. 어떤 계절일까요?
- ◆ 표지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 ◆ 눈사람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 ◆ 아이와 눈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 ◆ 제목 '눈아이'는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 보세요.

뒤의 표지

- ◆ 날아가는 새와 토끼를 따라가 봅시다.
  알록달록한 들판이 보이는 이곳은 어떤 계절일까요?
  아이가 땅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생각하며 연결 지어 보세요.
- ◆ 계절이 바뀌면 눈사람과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며 읽어 보세요.

나의 친구에게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눈아이는 친구가 건넨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도 눈아이처럼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봄이 오자 햇볕에 녹아 점점 작아지고 더러워지는 눈아이에게
아이는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고 약속합니다.
눈아이가 녹아 사라진 뒤에도 눈아이를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이의 우정 어린 마음은 순수하고도 뭉클합니다.
여러분의 단짝 친구를 생각하며 편지를 써 보세요.

보고 싶은 (　　)에게

너의 친구 (　　)

여러분의 다정한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를 받은 친구는 무척 감동할 거예요.

시로 표현하기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서 안에 「눈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장면을 떠올리며
여러분만의 「눈아이」 시를 써 봅시다.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눈아이	눈아이
세상은 하얗게 얼어 버리고 그 하얀 세상에서 새하얀 눈아이를 만났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눈아이를 잡은 아이의 시린 손 하얀 즐거움에 감각을 잃은 손 겨울의 끝에서 눈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립니다. 아이는 얼룩진 눈아이에게 온기가 남은 손을 내밀고 저 너머에서 초록이 밀려옵니다.	

함께 나눈 우정이 깊어질수록 소중히 기억해요!